

경제

2011 새해에는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

“폭설·AI 피해 납세자 적극 지원”

“부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지역경제도 어려운 때 영세납세자나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신경쓰지 않고 생업에 매진토록 납세자중심의 적극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성실中企 세무담 덜고

지능형 탈세 엄정과세

김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41세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젊고 건강하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토대로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자금지원·판로확대 등을 골자로 더욱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 여기에는 현장의 살아있는 탈세 정보를 수집·분석해 핀셋 셀렉팅(Pinset Selecting)에 의한 외과수술적 세무조사가 가동된다. 최근 폭설과, AI확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지원과 관련 ‘세금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현실적 도움을 통해 재해를 당한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도움을 주도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발전방안에 대해 “세계화 IT 산업의 발전 등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나포되지 않기 위해 진취적이고 도전적 자세로 납세자가 편안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든든한 자금(ICL)업무 등 국제세의 새로운 국민 복지업무를 차질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남 장성출생으로 광주주교와 전남대 법학과, 건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제청 총무과 서기관, 속초 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제청 대변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을 광주·전남경제 회복세 뚜렷

제조업 생산·수출 증가 고용 사정 점진적 개선

한은본부 지역경제 전망

2011년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 사정도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생산은 조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이 주요 수출품인 소울과 스포티지R의 혼류 생산을 통해 50만대 생산체제 구축하면서 생산능력이 늘어 내수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반도체 부문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신종 IT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공장가동 정상화와 북미지역 수출 호조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석유화학과 철강도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전부문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이 세탁기, 청소기 등 일부 제품을 해외 현지생산으로 전환해 증가세가 둔화하고, 조선도 수주잔량 축소로 인해 중소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국제적 경기회복의 영향과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성장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남은 선박의 수주부진과 철강 경쟁심화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도 소비심리가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고용도 경기회복으로 민간 부문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활동은 정부 SOC 예산 축소, 건설업체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수엑스포, 나주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가속화로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와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KAL, 만복기원 복조리 걸기 대한항공은 10일 신묘년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등 전국의 사업장에 복조리 걸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직원들이 외국 관광객들과 복조리를 들고 포즈를 취한 모습. /연합뉴스

임대산단 분양전환 쉬워진다

입주기업 의무임대기간 10년서 5년으로 단축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분양전환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개발법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하고 2008년 1월 이후 공고한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자본이

부족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 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장 50년을 보장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산업용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이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선 의무임대기간을 창업 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다시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중단해도 되고, 분양전환해 부지에 아예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구제역·AI피해 농가 비료가격 17% 인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10일 구제역·AI 등 각종 가축 전염병과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비료가격을 평균 17.1%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학비료는 전년대비 21.

9%, 일반 화학비료는 6.8% 내렸다. 비료가격 인하로 도내 농가는 맞춤형 비료 87억원, 일반화학비료 39억원 등 총 126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전남본부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맞춤형 비료 공급 규모를 전년대비 2만 9000t 늘려 1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해 환전·송금 고객 光銀 환율 우대 행사

광주은행이 새해를 맞아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환전·송금 고객을 위한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광주은행에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를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최고 70%, 중국 위안화 환전시는 최고 50%, 기타 통화 환전, 송금하는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환율을 우대한다. 또 행사기간 중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 각각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2등 10명에게는 각각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3등 20명에게는 각각 문화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광주은행 외환영업부 김국현 부장은 “이번 행사기간 동안 환전과 송금을 할 경우 가장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미기자 emlee@

기아차 신형 ‘모닝’ 사전계약

고객 1000명에 카메라·쿠폰 경품

기아자동차는 10일 신형 ‘모닝’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신형 모닝은 ‘독특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스포티 유려미와 경차’를 콘셉트로, 당당하고 활력있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다. 차체는 전장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485mm, 축거(앞뒤 바퀴 간 거리) 2385mm로, 1세대 모델보다 전장

60mm, 전고 5mm, 축거는 15mm가 길어졌다. 신형 1.0 카와 엔진을 장착해 최대출력 82마력, 최대토크 9.6kg.m을 구현했다. 연비는 자동변속기 모델 19.0km/l, 수동변속기 모델 22.0km/l로 국내 경차모델 중 최고의 힘과 연비를 갖췄다. 기아차는 신형 모닝 출시를 기념해 사전계약 고객 중 1000명에게 캐논 EOS 550D 카메라와 여성 운전자를

위한 ‘모닝 스위트 옵션’ 품목 무료 장착, 1년 커플 영화 예매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오는 3월까지 기아차 전 차종 구매자에게 아이리버 전 자사전과 MP3 플레이어, USB 등을 32~60% 할인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 가격은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매뉴얼 에어컨을 포함한 스마트 모델이 880만~1010만원, 디럭스 모델은 1000만~1100만원, 럭셔리 모델은 1105만~1155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수출 사상 최대 작년 115억달러 실적

광주지역 기업들이 2010년 115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4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 수출 유공자들을 시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0일 “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수출액이 지난 2007년 101억 4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70명의 수출유공자를 표창하고 기념식 당일 광주시 수출진흥시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디트로이트 ‘북미 국제 오토쇼’ 개막

세계 첨단 자동차 500여종 총출동

세계 4대 자동차전시회 중 하나인 ‘북미 국제 오토쇼(NAIAS·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10일(현지시간) 막을 올렸다. 올해 104회째로 디트로이트 자동차딜러협회(DADA)가 주최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1907년

처음 개최된 이후 1988년 북미 국제 오토쇼로 격상돼 미국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디트로이트에 근거지를 두고 행사를 주도해온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를 포함해 전 세계 54개 완성차 및 부품업체가 참가한다. 디트로이트 중심

부에 위치한 약 6만5000㎡(1만 9700평) 규모의 코보센터에 500여대의 차량이 전시됐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신차 및 콘셉트카는 40여 종이다. 방문객은 총 8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에서 몰려온 취재진만도 6000 명에 달한다. 10~11일 프레스테이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와 자선행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가 차례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Index and Value. Includes items like 코스피지수 (2,080.81), 코스닥지수 (533.98), 금리 (3.57%), and 원·달러 환율 (1,124.50).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Text includes: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www.hanbitgosi.co.kr', and '개강 1월 1일'.